

나주시청 사이클 전국대회 '금빛 질주' 빛났다

단체스프린트 우승 등 금 2·은 2·동 1 수확 경륜 우승 조선영 2관왕

나주시청 사이클팀이 금빛 질주를 선보였다. 나주시청은 최근 충북 음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1 음성 전국사이클대회에서 단체스프린트 우승 등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조선영은 이번 대회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 조선영은 정철화, 권소연과 함께 출전한 여일부 단체스프린트에서 51초707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상주시청(52.979), 과서울시청(53.266)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러 대회 4일자 스프린트 결승에 진출한 조선영은 결승에서 박지해(서울시청)를 만나 0-2로 아쉽게 패해 은메달에 만족했지만, 대회 마지막날 경륜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2관왕을 달성했다.

여일부 독주 500m에 출전한 정철화는 36초403의 기록으로 박지해(서울시청, 36.161)에 이어 은메달을, 권소연도 1Lap(S/S) 250m에서 20초718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일부에 출전한 강진군청 신동인은 제외경기에서 금메달을, 황범연은 개인추발 4km에서 4분40초238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따냈다.

황범연-배승빈·신동인이 출전한 단체추발 4km에서 4분14초400초로 금산군청(4:13.616)과 의정부시청(4:13.844)에 이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자일부 단체스프린트 우승을 차지한 나주시청 사이클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한국 수영 25년만에 올림픽 계영 800m 남녀 동반 출전한다

한국 수영이 올림픽 무대에서 25년 만에 남녀 모두 계영 800m에 나선다. 대한수영연맹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우리나라 남녀 대표팀 모두 2020 도쿄 올림픽 계영 800m에 출전이 확정됐음을 통지받았다고 8일 밝혔다.

FINA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단체전에는 총 16개국이 참여할 수 있다. 12개국은 올림픽 개최 전년도에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선 결과에 따라 상위 12개 팀이 자동으로 출전권을 가져간다. 나머지 4개국은 정해진 기한 내 FINA 승인대회에서 수립된 기록 중 가장 빠른 상위 4개 팀으로 결정된다.

여자 계영 800m에서 우리나라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나선 최정민-정현영-박나리-조현주가 8분08초38로 12위에 올라 일찌감치 출전권을 확보했다.

당시 출전권을 획득하는 데 힘을 보탠 선수 중 올림픽 단체전 전용 영자의 자적인 자유형 200m B기준기록(2분00초80)을 통과한 선수는 정현영(거제)뿐이다.

따라서 이미 개인종목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김서영(경북도청), 한다경(전북체육회), 이은지(오릉중)와 정현영이 한 팀이 돼 도쿄 올림픽 여자 계영 800m에 출전한다.

남자 계영 800m는 지난달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자유형 200m 1~4위인 황선우(서울체고)-이유연(한국체대)-김우민(강원도청)-이호준(대구시청)이 합작한 7분11초45의 기록으로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추가 획득했다.

우리나라의 기록은 프랑스(7분07초24), 헝가리(7분07초67)에 이어 세 번째로 빨랐다.

이로써 황선우는 생애 첫 올림픽에서 자유형 100m, 자유형 200m와 계영 800m까지 3개 종목에 출전이 확정됐다. 이유연, 이호준과 김우민 또한 생애 첫 올림픽을 직접 경험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계영 800m에 나서는 건 남녀 모두 1996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절대 강자' 없는 여자 테니스

프랑스오픈 8강 진출자 중 6명이 생애 첫 '메이저 8강'

최근 '절대 강자'가 없는 여자 테니스 판도가 올해 프랑스오픈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올해 프랑스오픈 여자 단식 8강에 오른 선수 8명 가운데 6명이 생애 첫 메이저 대회 8강 진출자들이다.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 8강에 오른 선수 가운데 6명이 생애 첫 메이저 8강인 경우는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올해 프랑스오픈이 처음이다.

종전 기록은 1969년 호주오픈, 1976년 프랑스오픈, 2001년 프랑스오픈의 5명이었다.

올해 프랑스오픈 여자 단식 8강은 이가 시비우테크(9위·폴란드)-마리아 사카리(18위·그리스), 코리 고프(25위·미국)-바르보라 크레이치코바(33위·체코), 엘레나 리바키나(22위·카자흐스탄)-아나스타시야 파블류첸코바(32위·러시아), 파올라 바도사(35위·스페인)-타마라 지단세크(85위·슬로베니아)의 대결로 펼쳐진다.

이 가운데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시비우테크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프랑스오픈 8강에 복귀한 파블류첸코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모두 메이저 대회 첫 8강 진출자들이다.

이 중 지단세크는 이 대회 전까지 메이저 대회 2

회전, 리바키나는 3회전이 최고 성적이었다.

사카리와 고프, 크레이치코바, 바도사는 16강까지는 오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다.

시비우테크가 대회 2연패를 하지 않는 이상 메이저 대회에서 처음 우승 하는 선수가 이번 대회 패권을 차지하게 된다.

8강에 오른 선수들의 나이도 젊은 편이다.

17세 고프를 필두로 시비우테크 20세, 리바키나 22세, 바도사와 지단세크 24세, 사카리와 크레이치코바 26세 등이다. 30세 파블류첸코바가 '왕 언니'다.

여자 테니스는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세리나 윌리엄스(8위·미국)의 2017년 출산을 전후해 '춘추전국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안젤리크 케르버(독일)가 호주오픈, US오픈을 석권한 이후 2017년부터 한 해에 메이저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한 선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프랑스오픈에서는 2016년 가르비네 무구루사(스페인)를 시작으로 2017년 엘레나 오스타펜코(라트비아), 2018년 시모나 할레프(루마니아), 2019년 에슬리 바티(호주), 2020년 시비우테크 등 최근 5년 연속 생애 첫 메이저 우승자가 챔피언에 올랐다.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 8강에 진출한 고프. 만 17세가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 8강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06년 프랑스오픈 니콜 바이디스바(체코) 이후 올해 고프가 15년 만이다.

/연합뉴스

포 주니어 테니스 2관왕 이재아 5월 MBN 여성스포츠대상 수상

한국 여자 테니스의 '셋별' 이재아(14·부천GS·사진)가 2021 MBN 여성스포츠대상 5월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이재아는 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이재아는 지난달 제1차 아시아테니스연맹(ATF) 양구 14세 국제주니어대회에서 단식과 복식을 석권하며 아시아연맹 주니어 랭킹 1위로 올라섰다.

이재아는 지난해 성인 선수들까지 모두 출전하는 한국선수권대회 여자 복식에서 단·복식 통틀어 최연소 예선 통과 기록을 세우는 등 유망주로 성장하고 있다.

이재아는 전 축구 국가대표 이동국의 딸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동국도 이날 시상식에 참석해 딸의 수상을 축하해줬다.

심사위원장인 임신자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은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본인의 재능과 노력으로 무럭무럭 성장하는 이재아가 한국 테니스의 미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 컨디셔닝센터 이용자 만족도 "굿~"



김국영(육상·광주시청)이 인공지능 스마트훈련 시스템과 파워 벡텍스를 융합한 전문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체력 향상·부상 회복 등 도움" 지도자 96%·선수 98% 만족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 컨디셔닝센터(이하 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체육회가 2020년도 센터 이용자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지도자(26명)와 선수(33명)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공통질문인 센터의 '지원 전문성' 부문에서 지도자 96%, 선수 98% 등 평균 97%의 이용자가 만족했다고 답했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과학적 지원'과 '체계적 지원' 관련 부문에서도 각각 95.5%와 94.5%의 만족률을 보였다. 과학적 체계적 지원 부문에서 지도자들에 비해 선수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력 향상(89%), 부상회복 및 빠른 현장복귀(85%), 신체기능 및 경기력 향상(82%) 부문에서도 높은 만족률을 보였다. 시체육회는 이같은 조사결과로 미뤄 스포츠과학 통합지원 시스템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광주 체육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원 확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문에서는 인력 확충과 공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장 요청에 대한 추가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짚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광주에 개소한 센터는 현재까지 총 1993명에 대한 컨디셔닝 지원을 완료했다. 전국체전 앞두고 오는 9월까지 광주시청 육상팀 등 8개 종목 11개 팀 등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크루엘라,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2관	크루엘라,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3관	크루엘라
4관	캐시트릭
5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6관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9관	캐시트릭, 파이프라인, 썬
7관 씨네커튼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플래시백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8관 씨네커튼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실크 로드, 2067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운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6. 26.(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뮤지컬 <캐터필러의 유령>
일시 : 2021.07.10.(토)-11.(일) 토 19:30, 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7